

濟州島民의 喪俗

高 富 子*

I. 머리 말

本 島의 喪俗 연구는 金榮敎교수(1966, 1973)와 李光奎교수(1974년)에 의해 조사 보고 된 적이 있으나 通過儀禮의 한 분야로 하여 비교적 간단하거나, 한 지역을 선정하여 조사된 정도이다.

이번 筆者의 喪俗 연구는 “濟州島 通過儀禮研究”의 일편으로 産俗(1976년)의 産前俗과 産後俗, 1977년의 育兒俗) 및 婚俗(1978년)에 이은 마지막 단계의 연구이며, 民俗學的인 조사방법에 의한 것이다.

本 연구의 자료는 1970년대부터 1986년도까지 島內 전지역에 걸쳐 古老들(50여명) 대상으로 면담 조사된 것이다.

면담 대상자는 본도 출신으로, 같은 지역에 오래 居住하고, 나이가 많으며, 喪禮에 대한 경험이 많은 자를 선정하였다.

本 조사의 내용 시기의 下限線은 해방전후까지로 볼 수 있다. 이는 민족 정신말살정책을 시작한 日帝時代를 基點으로 하면서 해방, 四·三事件, 6·25사변과, 外來文明의 무분별한 受用, 새로운 外來종교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本 島 고유의 재래 풍속이 붕괴하기 시작한 시기으로써 이는 古老들의 면담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 단국대·복식사, 민속학

Ⅱ. 喪과 祭禮에 나타난 조상숭배의 諸단계

本島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死後 조상숭배의 단계는 대강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제 1 단계는 初喪단계로서 가장 복잡한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1. 臨終준비
2. 임종 후 屍身처리
3. 出喪(葬禮式) 준비
4. 葬禮式
5. 葬禮 後 처리

6. 卒哭까지로 분리시킬 수 있으며, 임종 후부터 올리는 上食차림과 朔望이 大祥까지 계속되고 있다.

제 2 단계는 小祥으로, 死後 1년만이 지내며 半服을 벗게 된다.

제 3 단계는 2년 뒤에 지내는 大祥으로 脫服하며, 100일 뒤에 禫祭를 지내고,

제 4 단계는 年 1회씩 지내는 祭祀단계로 四代奉祀하며,

제 5 단계는 四代奉祀를 끝낸 조상을 위하여 年 1회에 올리는 모이제(墓祭:時祭)가 있다.

본 稿에서는 제 1 단계인 初喪단계에 대한 것만 간추린 것이다.

Ⅲ. 喪 俗

1. 臨終준비

나이가 들게 되면 여유있는 집에서는 본인 자신이나 자손이 적당한 산터 자리를 봐두며, 윤년이나 윤달을 기하여 호상옷을 준비하는 등 죽음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된다. 그러다가 終命이 가까워지면 자식이나 가까운 사람을 모셔오고, 屍身모실 방으로 옮기며,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히고, 마지막으로

먹일 음식(원미나 물)을 준비하여 참석한 者들이 떠 먹이며, 유언등을 들으며, 柩床을 준비한다.

2. 終命(屍身건우기)

① 초수렴……종명이 확인되면 屍身의 머리방향을 계절에 맞게 눕히고, 시신의 자세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 삼이나 신사라(신설란)·형질 등의 끈으로 시신을 군데군데 묶고, 질신을 신기고 발받침을 대며, 턱을 고여주고, 코나 귀등 구멍에는 설맹지(雪綿子) 솜으로 막는다.

단 중복중상일에는 시신에 손을 대면 안된다.

초수렴이 끝나면 자식들은 被髮 徒跣하고 哭을 하는데 큰 소리는 안된다.

② 招魂

초수렴을 마치면 직성이 센 남자가 지붕 앞쪽으로 올라가 상모루에 서서 혼적삼을 左執領 右執腰하고 東을 제외한 방향을 쳐다보며 혼을 부르는데 男性일 때는 본관·이름·나이를, 女性일 때는 본관과 나이를 부르며 뒤에는 북(북은 보)을 세번한다. 또한 혼을 부른자와 亡人의 관계를 말하기도 한다. 혼 부른 혼적삼은 머느리가 집뒤에서 床을 머리에 이고 차롱착에 받아다가 屍身의 얼굴에 덮는다. 그러나 마을에 마누라(홍역)가 들어왔을 때는 禁해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出喪하고 나갈 때 마을 밖에서 불러야 한다.

3. 出喪(葬禮준비)

① 訃告

終命을 알리는 일이다. 조문객(이웃친지)은 초나 종이 만서 갯자리 등을 부주로 가지고 오며, 사돈집에는 팔죽을 썬 온다.

② 造棺 및 求山

棺짜기와 산터자리를 보는 일이다. 棺나무는 상록수로 하며 주로 松木이 많이 쓰인다. 生時에 산터자리를 못 구한 사람은 정시(풍수사)를 데리고 산터를 구한다.

③ 대수렴준비

호상옷이 준비 안됐을 경우는 호상옷을 만들고 옷외에 補空할 옷을 찾아둔다.

④ 喪服만들기

주상·상제·복친 등 五服制에 의해 마련한다.

⑤ 성복제(成服祭) 준비

복을 입는다는 뜻으로 대수렴준비와 음식준비 및 造棺이 되면 入棺시간에 맞춰 成服祭를 지내게 된다. 특히 음식은 “성복 때 못 먹은 음식은 귀신 응감 안한다”고 하므로 떡·과자·적 등을 최대한 여러가지 준비한다.

⑥ 일포제

장사지내기 전날 저녁에 친척과 동네 사람(향도, 상뒤꾼)을 청해서 장례 일에 대한 의논과 협조를 부탁하면서 음식을 대접한다. 큰 딸이 태어나면 “일포젓 딸”이라고 하듯이 큰 딸이 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4. 葬禮式(葬날)

① 動棺

장례식날 아침 出喪 전에 棺을 세번 올렸다 내려놓는다. 이는 오늘 이곳을 떠나게 되니 움직여도 놀라지 말라는 뜻이며, 좋은 곳으로 갈 자리로 모신다는 말을 한다. 棺은 반드시 창문으로 나아가야 하며 상방(마루)의 대문으로 나가면 안된다. 또한 出棺 방향에 맞게 나가야 한다. (벽이나 담을 헐기도 한다)

② 하직제(발인)

棺이 마당이나 올라까지 운반되면 그곳에서 행상(상여)을 꾸민다. 이 때 술상을 차리고 간단히 하직잔을 올린다.

③ 出喪(운상)

出喪하는 순서는 제일 앞에 명정→(만서)→혼백상→(설배·女상재들)→행상(행여)→상재(男)→복친→문상객 순으로 따른다. 만서는 덕망이 있거나 권세와 돈이 있는 집 男性들이 주로 하며, 설배는 男·女喪에 거의 사용되며 女性에 의해 메게 된다.

運喪은 힘센 마을 男子(행상꾼, 향도: 1골에 약 30여명, 2골정도)들이 8~12인이 매머 먼거리일 때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메기도 한다. 이 때 질손·질음역이라 하여 葬地가 멀거나 여유있는 집에서는 運喪 도중에 행상꾼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을 먹인다.

우알다툼……흔히 있는 일은 아니었으나 도중에 다른 상여행렬을 만났을 때는 높은 쪽으로 갈려고 서로 위 아래의 다툼이 생기는데 이는 가문의 세력다툼이기도 하였다. 혼례행렬과 마주치게 되면 양보한다.

원미케우리기……運喪 도중에 자식의 집이나 친지의 집앞을 지나게 되면 술이나 원미 등을 준비하여 亡人에게 마지막 대접을 하는 일이다.

④ 葬地에서

산제(토신제, 토저지신제)

장례 전날 또는 장날 아침 새벽에 부정타지 않은 남자가 산신에게 오늘 누가 이곳에 새집을 정하여 온다고吿하는 祭이다. “산신은 福도 빠르고 祿도 빠르다”하므로 정성껏 지내야 하며 산신제 지내는 耆(祭官)나 준비하는 집 식구들도 부정타지 않게 조심하며 음식준비도 모두 맡아서 한다. 모든 음식은 밥만 익히고 생것으로 하며 남은 음식은 집으로 가져오면 안된다.

葬地에 도착하면 행여를 方位에 맞은 자리에 놓으며 “말부림역”이라 하여 행상꾼에게 술과 떡을 대접한다.

開壤……棺이 들어갈 자리를 파는 일로 미리 파두기도 하는데 약 3자 깊이로 파나 옆은 치수가 정확하게 맞게 해야 한다.

진토……방향이 맞는 곳에 가서 봉분을 쌓을 흙과 잔디·돌을 운반하는 일로 마을 향도꾼이 한다.

下棺……시간에 맞춰 땅속에 묻는 일이다. 처음에 棺→명정→삽(鑿)과 훈(纒)과 동심결을 놓고 개관을 덮는다. 마지막에는 개관 두껍을 하나 열고 상주나 조문객이 하직배라고 하여 술잔을 올린다. 下棺때는 相沖인 자는 피해서 보지 말아야 한다(정시가 “○○띠”는 피하라고 한다).

달귀짚기……개관을 덮은 뒤 흙을 다지는 일로 棺이 썩더라도 시신위에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히 다지는 일이다. 구쟁기막살(소라껍질)과 진흙을

섞어서 회반죽을 만들어 붓고 위에는 흙을 덮고 계속 다진다. 나무막대기로 봉분의 주위를 돌면서 찡는데 주로 男性(향도꾼)들이 했으나 차츰 女性들도 가담하게 되었다. 이 때 목소리 좋은 耆가 선소리를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장단을 맞춰 훗소리로 받는다. 달구짚기를 할 때는 “도공쉬 걸었다”고 하여 富貴권세를 가진 집에서는 葬地에다 솔을 걸어 놓고 소나 돼지를 잡고 음식 대접도 한다.

고적(제물떡)받기……가문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姓家 8촌~12촌, 外家 4촌~6촌까지는 장례날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고적을 해야하며 고적의무를 못하면 가문에서 추방을 당한다. 고적은 떡으로 하는데 크기와 수량에 통과 하여야 하며 이것으로 葬地에 온 사람들을 대접한다.(옛날엔 음식대접이 없었고 모두 떡으로 대접을 하였다.)

필역반태우기……葬地에서 모든 일을 마치면 고적 받은 떡으로 나누어 주는데 이를 “필역반 태운다”고 한다.

산제……봉분을 다 쌓으면 산신에게 시신을 잘 묻었다고 告하는 제사이다.

初虞祭(음제, 망인제)……葬地의 모든 일을 마치고 100보 밖으로 와서 지내는 祭로서 상주에게는 비로소 첫祭가 되어 정식으로 분향잔을 올린다. 또는 길거리에서나 집에와서 지내기도 한다.

혼백모셔오기……혼백상자를 머느리가 머리에 이거나 등에 져서 오는데 갔던 길로 바로오며 뒤돌아 봐서도 안된다.

⑤ 귀양풀이(절치기)

객사하거나 원한의 죽음을 했을 때는 후한이 없게 하기 위하여 장례식날 밤에 무당을 데려다가 굿을 하게 된다. 여유 있는 집에서는 亡人이 좋은 곳으로 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기도 하는데 이때 무당을 통하여 亡人과 대화를 나누게 된다.

5. 葬禮後의 儀禮

① 再虞祭

장례 마친 다음날 아침 집에서 지내는데 손이 막히지 않은 날(柔日…乙·

丁·己·辛·癸日)로 하며 막히면 다음으로 한다.

② 三虞祭

장례 3일만에 지낸다. 이 날은 剛日(甲·丙·戊·庚·壬)이어야 하며 손이 막힌 날이면 다음으로 한다.

6. 卒哭

哭을 멈춘다는 뜻이다. 장례를 마치고 100일 즈음한 剛日에 하는데 대부분 朔望 때에 같이 하기도 한다.

IV. 맺는 말

孝를 삶의 근본으로 삼고 살아온 조상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죄인된 몸이라 하여 인연을 끊고 오직 亡人 모시기를 道로 여기고 살다보니 “두불不孝”를 낳았다 한다. 즉 부모님을 여의었으니 첫째 불효이고, 둘째는 死後 부모님 모시기를 정성으로 하다보니 조상섬길 후손을 못 두었으니 두가지 불효를 저지른 셈이 되었다는 말이다.

지금은 일년상은 고사하고 사십구채로 끝나며 죄인으로 지켜져야 했던 금기사항도 없다. 현대인들은 五服制나 조상을 위한 儀禮를 구세대의 유물이라고 한다. 그러나 “죽지 못해 살아야 했다.”는 제주섬의 古老들의 경험담 속에는 삶의 철학이 있고 당시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을 대변하여 주는 시대적인 증언이 있다.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美風良俗이 변질되고 붕괴되는 현시점에서 이제 제주고유의 전통, 우리의 것 속에서 살아온 古老들이 가기 전에 하나하나 정리하여 후손들에게 올바른 옛것을, 올바른 우리것을 심어야 하는 긴박한 시대에 와 있다. 현재에 남아 있는 문헌자료들은 후학들에 의해서도 연구될 수 있다. 그러나 기록되어 있지 않는 서민들의 심층생활 풍속사는 그 세대가 가면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기록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